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주눅이 들게 만들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이들을 대하게 되면, 심정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당당한 태도가 부러울 수도 있다. 일례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에 등장하는 일류 잡지의 편집장인 미란다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과장된 자기 지각, 감정이입 능력의 결여, 착취적인 대인관계, 특권의식, 거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개인이 성격적으로 다수 지니고 있을 때 자기애성 성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이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과 달리, 현재는 자기애 성향이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Lasch(1979)는 현대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짓고, 자기애적인 스타일이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강선희, 정남운, 2002, 969쪽에서 재인용). 즉,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은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자신을 홍보하며, 경쟁에서 이겨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애는 현대 사회에서 긍정적인 요소만을 지니고 있을까? 최근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자기애는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사회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에서는 고학벌의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맡지 못하거나 강압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스트레스 증상 및 우울증을 호소하며 이직하거나 아예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2010. 9. 2, 한국경제). 이를 일명 ‘미성숙 우울증’ 신드

롭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의 심리학자인 Twenge와 Campbell(2009)은 현재 세대를 ‘자기중심주의 세대(Generation Me)’로 명명하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했던 교내 대량 살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유명인이 되는 지름길로 여겨지는 등 자화자찬의 나르시시즘 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2010. 6. 3, 연합뉴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자기애는 스스로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주위의 타인이나 사회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애에 대한 임상심리학 및 정신의학의 관점들을 고려해보면, 자기애는 자신에게도 긍정 및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초래하는 양면성을 지닌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애성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외양과 달리 두려움과 취약성,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도 지닌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자기애의 양면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참가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나 지난 세대에 비해 최근 대학생들의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중심성이 상승한 점과 관련이 있다(Twenge, Konrath, Foster, Campbell, & Bushman, 2008). 특히 적응 수준이 양호하면서 자기애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고양 동기를 목표로 다양한 자기조절 노력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타인의 이목을 끌려고 하거나(attention-seeking)(Buss & Chiodo, 1991),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거나(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주로 공적인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Wallace

& Baumeister, 2002), 거절이나 모욕에 직면하여 공격성이 상승하는(Bushman & Baumeister, 2002) 등 오히려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Twenge 등, 2008, 877쪽에서 재인용).

이에 더하여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요소로 1년 후 우울감의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자기애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주로 횡단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기인한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횡단연구의 경우에 변인간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인과관계를 확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에 본 연구는 자기애의 수준이 향후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종단연구를 설계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자기애의 양면성은 여러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최근 가장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류는 외현적인 자기애와 내현적인 자기애의 두 유형이다. 이러한 구분은 자기애가 발현되는 양상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인 분석을 통한 경험적 증거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지지되어왔다(강선희, 정남운, 2002). 구체적으로, 두 유형 모두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 등과 같은 자기애의 핵심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애가 스스로에 대한 과장된 자기지각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며, 타인들로 하여금 찬사나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과장된 자기상의 손상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

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며,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거대자기와 특권의식을 숨긴 채 외현적으로 겸손함을 가장하는 모습도 특징적이다.

연구자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를 몇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표 불안정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주 소진감을 느껴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는 성향을 반영하며,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타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착취/자기중심성’은 착취적인 대인관계, 특권의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반영한다. 또한 ‘과민/취약성’은 평가에 예민하고 취약하며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측면을 나타내며, ‘소심/자신감 부족’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수줍어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태도를 나타낸다(강선희, 정남운, 2002).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하위 요인 중에서 ‘목표불안’, ‘거대자기’, ‘자기중심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반면, ‘과민’과 ‘소심’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한 특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애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거대성-과시성’과 ‘취약성-민감성’이라는 각기 다른 발현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현 양상에서의 차이점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는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최근 보고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크고, 더 부적응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등, 2005; 이준득 등, 2007). 예를 들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신을 더 외향적이고 자신감에 차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더 내향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강선희, 정남운, 2002), 공격성과 분노를 억제하는 수준도 더 높고, 자기 명료성은 더 낮았다(이준득 등, 2007). 또한 강연우(2004)에 따르면, 외현적인 자기애 성향자는 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도 함께 높을 경우에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만 높거나 둘 다 높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위에 열거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외현적 자기애는 자존감이 높고, 불쾌한 정서를 덜 느끼는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존감이나 자기 명료성이 낮고, 부정적인 심리특성과 연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외현적 자기애자와 내현적 자기애자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있으나,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의 경우,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양 행동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열등감과 낮은 자기확신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물론 이 두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을 다룬 연구(강연우, 2004)도 보고된 바 있으나, 주로 방어기제를 다룬 점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1년 이후의 우울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Miller(1979)는 “우울은 자기 상실(the loss of the self)의 고통에 대한 방어”라고 말하며,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찬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내적 감정보다는, 성과나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취약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결코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우울해진다고 보았다. 즉, 자기애적 성격의 특징 중 하나인 특권의식은 전지전능의 심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신이 특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으며 무능하다는 잠재적인 느낌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억제되어 있던 수치심이 촉발되면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vid, 1994, 203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해는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자기애와 우울의 연관성은 대학생 집단 뿐 아니라, 알콜 중독 치료 집단, 정신병동 환자 집단에서도 나타났다(Watson, Sawrie, Greene, & Arredondo, 2002). 반면, 기혼여성의 자기애와 우울에 대한 권영란(2002)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성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비교적 건강한 지역사회 모델에서는 자기애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성격 특성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박세란 등(2005)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이 결과들을 보면,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이들은 연구에 따라 우울에 더 취약하기도 하

고, 혹은 더 강건하기도 하다.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를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 분노, 공격성, 불안을 포함한 부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이준득 등 2007;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에 포함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지닌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함께 내현적 자기애도 높을 때, 우울을 비롯한 부정적인 정서에 가장 취약하며,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경우에는 우울감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 두 유형의 자기애와 함께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욕구가 우울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제 우울에 자기애와 함께 자기고양동기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고양동기의 역할

자기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지 알아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존감 혹은 자존감을 고양시키려는 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두 가지 자기애 모두 자존감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나타났다(Rose, 2002).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존심을 높이려는 시도를 빈번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애와 자존심의 관련

성을 추측할 수 있으며, 단순한 자존심이 아닌, 자존심을 높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Campbell 등(2000)은 자존심을 높이려는 전략과 자기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피검자들에게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무작위로 통보하고, 자기애가 높거나 낮은 집단에 따라 각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방략을 사용했는지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기고양동기가 높았는데,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을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방략(comparative strategy, 예; 실패에 대해 동료 비난하기)과 타인과의 비교를 포함하지 않는 방략(noncomparative strategy, 예; 실패한 결과 자체를 축소시키기) 모두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애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지 않았으며, 주로 과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저평가하여 관계가 손상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자기애 성향자 특유의 공감능력 부족과 자기중심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위의 연구를 보면,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고양하려는 시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최근의 국내 연구(박세란 등, 2005)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에 따른 자기고양의 효과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에게

서 더 높게 나타난 우울감을,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방어적으로 자신을 고양시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존심 및 자기고양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자기애에 더해서 자기고양동기도 연구에 직접 포함시켜서,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및 자기고양동기의 수준을 측정하여, 각 변인이 높거나 낮은 조건을 서로 교차시켜 여덟 개의 조건을 구성하였고, 각 조건별로 1년 후 우울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둔 조건은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으로써, 이 조건에서 우울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우울감이 높았던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외현적 자기애가 낮은 조건보다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에서 1년 후 우울감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자기고양동기의 중재효과도 예상하였다(가설 2). 즉,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에서 자기고양동기가 높으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대로 자존심을 높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상하지만(박세란 등, 2005; Campbell et al., 2000), 결과적으로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와 현실 대처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자기고양동기가 낮을 때보다 우울감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1년 간격의 두 시점으로 구성된 종단연구에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대학생들로 표집을 구성하였다. 1차 조사는 심리학 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한 사람은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두 강좌에서 동일한 인물이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총 216명로부터 질문지가 수거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응답하였다고 분류된 사람은 214명이었다. 1차 조사 질문지의 가장 후반부에는 2차 조사에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는 질문이 있었고, 총 191명이 2차 조사에 참여하기를 수락하였다.

수락한 참가자들에게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약 11개월 후에 질문지가 발송될 예정임을 미리 공지하였는데, 이는 실제 2차 조사가 이루어지기 약 3주 전이었다. 이후에 참가자들이 1차 조사 당시에 기입해 넣었던 이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자들은 질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파일 상에 응답하고 이를 다시 저장한 후 답메일에 첨부하도록 유도되었다. 2차 시점에서는 140명의 참가자들이 신뢰롭게 응답한 것으로 분류되어서, 재응답율(retention rates)은 65%이었다. 2차 시점에서도 응답한 사람들($n = 140$)과 2차 시점에서 탈락한 사람들($n = 74$)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들의 1차 측정치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에서 우울감, 2차 시점에서 응답한 사람들,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순서대로, $M = 46.43$, $M = 46.82$, 자존감, $M = 2.91$, $M = 2.94$, 자기고양동기, $M = 2.64$, $M = 2.58$, 외현적 자기에, $M = 3.36$, $M = 3.35$, 내현적 자기, $M = 2.89$, $M = 2.87$,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 $M = 3.00$, $M = 2.98$, 내현적 자기에의 거대자기, $M = 2.80$, $M = 2.78$,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중심, $M = 3.02$, $M = 3.06$, 내현적 자기에의 과민, $M = 2.91$, $M = 2.89$, 내현적 자기에의 소심, $M = 2.71$, $M = 2.63$ 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1차 및 2차 시점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14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입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1차 및 2차 조사 자료의 병합은 이메일주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척도 및 질문지의 구성

외현적 자기에.

황순택(1995)이 개발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참가자들은 박세란 등(2005)이 제안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의 7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89$ 이었다.

내현적 자기에.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4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영역은 9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로 보면, 목표불안(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60$, 거대자기(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63$, 자기중심(예, ‘기회만 된다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68$, 과민(예,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68$, 소심(예,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63$ 이었다. 전체 45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87$ 이었다.

자기고양동기.

장은영(2003)이 개발한 척도(self-enhancement motiv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값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동의한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총 5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일치도 계수는 $\alpha = .92$ 이며, 각 문항에 응답한 값들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영호(1993)가 표준화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참가자들은 ‘거의 그렇지 않음(1)’

에서 ‘항상(4)’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alpha = .87$ 이었으며, 각 문항에 응답한 값들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울감.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척도(Korean version of the Symptom Checklist-90-Revised)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개의 문항으로 참가자들은 ‘전혀(1)’부터 ‘매우 심함(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1차 시점에서 $\alpha = .89$, 2차 시점에서 $\alpha = .91$ 이었으며, 각 문항에 응답한 값들을 연령과 성별에 해당하는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시점에서 측정된 우울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상관계수로 측정하였는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r = .36, p < .01$.

자료의 분석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 영역들(목표불안, 거대자기, 자기중심, 과민, 소심), 자기고양동기, 자존감, 두 시점에서의 우울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및 자기고양동기가 1년 동안의 우울감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자기고양동기를 중간값을 기준으로 각 수준이 높거나 낮은 두 수준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차 시점의 우울감을 공변인으로 하고, 2차 시점의 우울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2×2×2 요인설계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

고¹⁾, 측정하고자 의도한 관찰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이 분석에는 SPSS 13.0판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1차 시점의 우울감과 2차 시점의 우울감은 .36의 유의한 상관($p < .01$)을 보였다. 그리고 1차 측정 당시의 우울감은 동일한 시기에 측정했던 자존감, $r = -.42, p < .01$, 외현적 자기에, $r = .37, p < .001$ 및 내현적 자기에, $r = .52, p < .0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지만,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가하여 우울감은 동시점의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 영역인 목표불안정, $r = .35, p < .001$, 거

1) 최종 분석자료에는 98명의 여학생과 42명의 남학생들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들간 성차가 존재하는지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1차 시점의 우울감, 남학생, 여학생 순서대로, $M = 46.57, M = 46.18$, 2차 시점의 우울감, $M = 47.46, M = 48.86$, 자존감, $M = 2.90, M = 2.96$, 자기고양동기, $M = 2.58, M = 2.68$, 외현적 자기에, $M = 3.34, M = 3.36$, 내현적 자기에, $M = 2.87, M = 2.90$,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 $M = 3.00, M = 3.00$, 내현적 자기에의 거대자기, $M = 2.78, M = 2.81$,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중심, $M = 2.97, M = 3.04$, 내현적 자기에의 과민, $M = 2.91, M = 2.91$, 내현적 자기에의 소심, $M = 2.66, M = 2.73$ 에서 모두 유의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 변인들 상관관계 ($n = 140$)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 우울감_1차	46.30	(7.99)	1.00										
2 우울감_2차	47.88	(8.37)	.36***	1.00									
3 자기고양동기_1차	2.65	(1.02)	.22*	.15*	1.00								
4 자존감_1차	2.94	(1.01)	-.42***	-.21*	-.05	1.00							
5 외현적 자기에_1차	3.36	(.91)	.37***	.17*	.16*	-.06	1.00						
6 내현적 자기에_1차	2.89	(.38)	.52***	.19*	.09	-.43***	.48***	1.00					
7 내현적 자기에_목표불안정_1차	3.00	(.29)	.35***	.09	.00	-.20*	.01	.42***	1.00				
8 내현적 자기에_거대자기_1차	2.80	(.52)	.49***	.14	.12	-.41***	.39***	.88***	.38***	1.00			
9 내현적 자기에_자기중심_1차	3.02	(.57)	.30***	.17*	.03	-.25**	.48***	.82***	.17*	.56***	1.00		
10 내현적 자기에_과민/취약성_1차	2.91	(.48)	.47***	.11	.08	-.41***	.50***	.89***	.20*	.74***	.72***	1.00	
11 내현적 자기에_소심함_1차	2.71	(.51)	.49***	.22*	.11	-.41***	.39***	.85***	.25**	.75***	.59***	.70***	1.00

* $p < .05$, ** $p < .01$, *** $p < .001$.

대자기 환상, $r = .49, p < .001$, 자기중심, $r = .30, p < .001$, 과민/취약성, $r = .47, p < .001$, 소심함, $r = .49, p < .001$ 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가하여, 우울감은 동시점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려는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5$.

2차 시점의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보면, 자존심이 낮을수록, $r = -.21, p < .05$,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호하려는 자기고양동기가 높을수록, $r = .15, p < .05$, 외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r = .17, p < .05$,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r = .19, p < .05$, 1년 후 우울감이 높은 점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자존심, 자기고양동기,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는 1차 및 2차 시점의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1년의 시간이 존재하는 2차 시점의 우울감과 상관이 더 낮은 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내현적 자기에의 세부 영역에서는 1차 및 2차 우울감과 상관계수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동시점에서는 우울감과 내현

적 자기에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1년 후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을 지닌 하위 영역은 자기중심적인 착취 경향, $r = .17, p < .05$ 과 소심함이었다, $r = .22, p < .05$.

흥미로운 점은 자존심을 높이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자기고양동기, 자존심, 자기에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외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자기고양동기가 높으며, $r = .16, p < .05$, 내현적 자기에도 높았지만, $r = .48, p < .001$, 자존심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못했다, $r = -.06$.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자존심은 낮았다, $r = -.43, p < .001$. 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명시적으로 과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실제로 자존심을 높이고 보호하려는 동기가 높으며, 암묵적이며 모호한 방식으로 자기에를 드러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존심을 높이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자존심에서는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다

표 2.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고양동기 수준에 따른 1년 후 우울감

		높은 자기고양동기		낮은 자기고양동기		합계
		Mean(SE)	n	Mean(SE)	n	Mean(SE)
높은 내현적 자기애	높은 외현적 자기애	58.10(2.28)	21	45.71(2.49)	14	51.91(1.74)
	낮은 외현적 자기애	46.47(2.61)	15	42.60(2.47)	15	44.54(1.79)
	소계	52.28(1.81)	36	44.16(1.75)	29	48.22(1.28)
낮은 내현적 자기애	높은 외현적 자기애	44.38(2.91)	11	46.67(2.38)	18	45.53(1.91)
	낮은 외현적 자기애	49.46(2.28)	17	46.06(1.82)	29	47.76(1.48)
	소계	46.92(1.87)	28	46.36(1.53)	47	46.64(1.25)
합계		49.60(1.24)	64	45.26(1.15)	76	47.44(1.19)

수 있다. 반면에 우울감을 경험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암묵적인 자기애를 높게 지니고 있을수록, 자존심은 오히려 낮은 점도 시사한다.

외현·내현적 자기애 그리고 자기고양동기에 따른 우울의 변화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외현적 자기애가 낮은 사람들에게 더해서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거나 낮은 사람들의 우울감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 자기고양동기의 조절역할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두 유형의 자기애와 자기고양동기가 높거나 낮은 조건을 모두 교차시키고, 1차 시점의 우울과 2차 시점의 우울 간 .36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1차 시점의 우울감을 공변인으로 하여 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전체 표집의 평균값이 3.36이었고, 3.28보다 낮은 이들이 51%, 3.39보다 높은 이들이 49%

가 되도록 그 수준을 둘로 구분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평균이 2.89이었고, 2.87보다 낮은 이들이 53%, 2.91보다 높은 이들이 47%가 되도록 구분하였다. 자기고양동기의 경우에는 2.65가 평균이었고, 2.60보다 낮은 이들이 54%, 2.80보다 높은 이들이 46%가 되도록 구분하였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수와 1차 우울감으로 2차 우울감을 조정한 평균값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조정된 평균값과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함께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²⁾. 먼저, 자기고

2) 2차 시점의 우울점수에서 1차 시점의 우울점수를 감하여, 그 차이값에 대한 삼원변량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주효과, $F(1,131) = 7.58, p < .01$ 와 삼원 상호작용효과, $F(1,131) = 3.72, p < .05$ 가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낮을 때, $M = -1.18$ 보다 높을 때, $M = 3.97$, 그 우울의 증가가 유의하였다. 또한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으면서 자기고양동기가 낮을 때, $M = 3.80$ 보다 높을 때, $M = 4.10$, 우울의 증가량이 더 컸다. 이러한 삼원 변량분석 결과는 1차 우울감으로 2차 우울감을 조정한 공변량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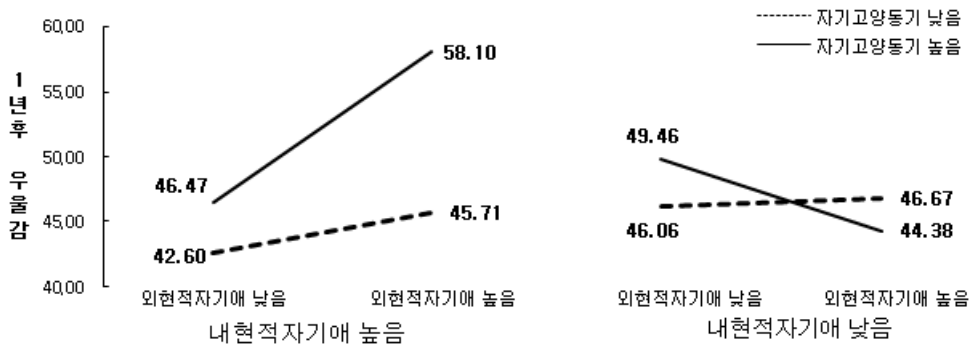


그림 1.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고양동기에 따른 1년 후 우울감

양동기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자기고양동기가 낮은 조건, $M = 45.26$ 보다 높은 조건, $M = 49.60$ 에서 사전 우울감으로 조정된 1년 후 우울감이 더 높았다, $F(1,131) = 6.48, p < .05$. 다만, 이 주효과는 자기고양동기와 내현적 자기애의 유의한 상호작용으로 그 해석에 제한이 있다, $F(1,131) = 4.99, p < .05$. 구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조건에서 단순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1,131) = 9.15, p < .01$,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자기고양동기가 낮은 조건, $M = 44.16$ 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자기고양동기가 높은 조건, $M = 52.28$ 에서 1년 후 우울감이 더 높았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이원상호작용도 유의하였는데, $F(1,131) = 8.03, p < .01$,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조건에서 단순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1,131) = 7.97, p < .01$,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외현적 자기애가 낮은 조건, $M = 44.54$ 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조건, $M = 51.91$ 에서 1년 후 우울감이 더 높아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다만, 이상에서 언급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해

석에 제한이 있다, $F(1,131) = 4.50, p < .05$. 표 2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내현적 그리고 외현적 자기애가 모두 높으면서, 자기고양동기도 높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조건에서 단순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1,131) = 11.11, p < .01$, 단순주효과가 유의한 조건도 내현적 그리고 외현적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에서 발견되었다, $F(1,131) = 9.38, p < .01$. 즉,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을 때에는 자기고양동기가 낮은 조건, $M = 45.71$ 보다 자기고양동기가 높은 조건, $M = 58.10$ 에서 사전 우울감으로 조정된 1년 후 우울감이 더 높아서 본 연구의 가설 2도 지지되었다(그림 1).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의 두 측면, 즉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에 따라 1년 후 우울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자기고양동기의 중재효과도 살펴 보았다.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

와 일관되게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에서 자기고양동기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동시점에서 측정된 우울감으로 조정된 1년 후 우울감이 더욱 높았다.

자기애와 우울

자기애는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을 지녔다. 특히 동시점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혹은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모두 우울감이 높았다. 1년 후의 우울감과외 상관계수를 보면, 이러한 연합의 강도는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자기애와 우울감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의 가치를 과대하게 지각하고, 특권과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며, 타인을 착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자기애는 그것이 외현적이며 명시적으로 드러나건 혹은 내현적으로 존재하건 개인의 우울감을 높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져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과 지닌 상관계수가 다소 더 높았고, 외현 자기애는 자존심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으나, 내현 자기애는 자존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들은 외현적 자기애자와 내현적 자기애자로 구분하였을 때에, 내현적 자기애자가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더 높고, 자기개념이 취약했던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도 일관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준득 등, 2007). 또한 자기애적 성격에 수반되는 정서문제들 가운데 우울장애도 존재하는 점을 제안한 선행연구와도 일관된다(Stinson et al., 2008).

또한 이러한 자기애와 우울감의 관계는 자기애를 세분화할 때 더욱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대한 자기지각이나 착취

및 특권의식 등으로 구성되는 자기애가 내현적으로도 존재하고, 외현적으로도 드러날 때에 우울감이 더욱 상승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더해져, 웅대한 자기상을 외현적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면서도,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취약한 자기애자들은 이 가운데 한 측면만을 강하게 지닌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는가? 먼저, 본 연구자들은 한 개인 내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기울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구분되는 특성임을 강조하였고, 이 두 유형간 우울을 비롯한 여러 변인들에서 차별화되는 점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 두 유형은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중등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표 2에서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각각 35명과 46명으로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그 숫자가 더 많았다. 이는 두 유형의 자기애를 구분하여 차별화되는 특성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자기애를 모두 지닌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이나 그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연구적 혹은 치료적 관심이 필요한 점을 시사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과대한 자기지각이나 특권의식 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겉으로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평가나 비판에 예민하며, 내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자기지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 두 유형

을 모두 강하게 지니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외현적으로 그리고 내현적으로 자기애가 모두 강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유형의 자기애를 기술한 바 그대로 지닌다면 이는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공존하는 셈이다. 하지만, 자기애를 외현 및 내현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유사한 다른 관점들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먼저, Rosenfeld(1987)는 안하무인적인 후피적 자기애자(thick-skinned narcissist)와 조심스러운 방식의 박피적 자기애자(thin-skinned narcissist)로 구분한 바 있으며, Gabbard(1989)는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부주의형 자기애자(oblivious narcissist)와 타인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과잉경계형 자기애자(hypervigilant narcissist)로 구분한 바 있다. Millon(1996)은 자신의 가치나 특권을 확신하는 엘리트형 자기애자(elitist narcissist), 내적으로 열등감과 부적절감이 강하지만 외적으로는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하고 외현적으로 이를 과시하는 보상형 자기애자(compensatory narcissist),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이며 죄책감이 결여된 무절제형 자기애자(unprincipled narcissist), 이성을 성적으로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을 입증하려는 호색형 자기애자(amorous narcissist)로 구분한 바 있다.

이상의 분류들을 보면, 외현적 자기애자는 후피적 자기애자나 부주의형 자기애자에 가깝고, 내현적 자기애자는 박피적 자기애자나 과잉경계형 자기애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현적 그리고 외현적 자기애를 교차하는 두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은 사람들은 Millon의 분류에서 보상형 자기애자와 가깝고, 외현적 자기애만 높은 이들은 엘리트형 자기애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두 차원의 자기애가 모두 높은 이들을 나머지 조건의 사람들에 비해서 질적으로도 다른 특성을 지니며,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내적으로 부적절감과 열등감이 강하게 자리잡았으면서도 이를 보상하려 자신을 과시하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이들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신이 바라던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존심에 더욱 위협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자기고양동기와 우울

두 유형의 자기애에 더해서 자기고양동기도 우울감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내현적으로 그리고 외현적으로 자기애가 모두 높을 때에 자기고양동기 수준도 높으면 고양동기가 낮을 때에 비해서 우울감이 더욱 상승하였다. 자기고양동기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호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 이러한 자기고양동기의 개념을 고려하면, 두 유형의 자기애가 모두 높은 조건에서 자기고양동기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자존심을 방어하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울감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Robins와 Be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고양동기는 자기애 성향 및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거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 및 학업적 몰입의 수준을 낮춘다. 즉, 자기고양동기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해당 시점의 우울 정도를 측정했 것이 아니라 1년 이후의 우울 정도를 측정했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겠다.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자기고양동기가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Taylor, Lerner, Sherman, Sage 그리고 McDowell(2003)은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의 자기-타인 편향이 긍정적인 자기-존중(self-regard)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빈약한 자기-제시(self-presentation) 또는 사회기술의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Campbell 등(2003)은 결과적으로 자기고양동기는 허풍떨기, 과도한 경쟁심, 적개심 등을 포함한 부적응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기고양동기가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을 지니며, 자존심을 회복하려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을 때에 이 동기의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보인 선행연구(장은영, 2003; Taylor, Wayment, & Carrillo, 1993)의 결과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고, 공변량분석에서 자기고양동기의 주효과가 유의했던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자기고양동기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에, 개인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우울하며, 자존감에 상당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과제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과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영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참가자로 선정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장래에 실제 자기애성 성격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

로 이들의 두 유형의 자기에 수준과 자기고양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자기가 모두 높을 때에 자기고양동기가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우울감이 더 높았던 결과의 원인으로, 이들이 내현적으로나 외현적으로나 자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자기고양에 실패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자기고양 동기의 수준은 직접 측정하였지만, 이들이 자기고양에 실패하였는지 여부 혹은 자기고양의 동기가 충족된 수준 및 사회적 지지의 변화는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고양하고자 시도한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켜 본 연구가 가정한 심리적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우울감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Piccinelli & Wilkinson, 2000)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우울감을 측정한 방식의 의심해볼 수도 있겠으나, 신뢰도 수준이 충분히 높았고 우울감과 자기고양동기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점은 선행연구 결과(장은영, 2003)와 일관되어 타당도도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측정의 문제보다는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 연구자들은 우선 표집의 특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우울에서 성차가 발견된 연구들은 주로 우울관련 장애 혹은 우울감이 절단점 이상인 비율을 비교하였거나 (조현주, 임현주, 조선진, 방명희, 2008; Kelly, Tyrka, Anderson, Price, & Carpenter, 2007; Kessler, 2003; Piccinelli & Wilkinson, 2000; Weekes, MacLean, & Berger, 2005), 특정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 이후에 우울을 측정할 경우

(Hughes, Taylor, Robinson-Whelen, & Nosek, 2005; Kendler, Thornton, & Gardner, 2000)가 많았다. 반면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학생들로서 자기평가나 자존감이 높아서, 일상의 스트레스에 비교적 잘 대처하며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생활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우울감에서 성차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 실제 우울감의 수준도 약 46점 정도로 T점수의 평균값에 해당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도구인 간이정신진단 검사요강에서 보고된 값을 보면, T점수화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대학생 집단의 평균이 각각 1.10과 1.33으로 여성에게서 다소 높지만, T점수는 이러한 전체 평균이 50점이 되도록 환산한 값이므로, 이로 인해 T점수 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네 번째 제한점으로는 1차 시점과 2차 시점의 우울 간 상관인 .36으로써, 이는 유의한 수준에는 해당하지만 그 절대값이 다소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이정신진단척도가 응답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1년의 간격에 따른 안정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일한 측정치간 안정성이 보다 높게 보장된 조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주종속치로 포함하였으나, 자기애적 성격이 초래할 어려움 혹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나타날 정서 문제는 우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일례로 자신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감도 존재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이입능력의 결여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에서는 우울 이외에 정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변인을 종속치로 다루어보는 것

도 의의가 있겠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어서, 하위 영역의 값을 합하여 내현적 자기애 수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하위 영역별로 2차 시점의 우울과 지니는 상관관계가 달라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는 우울에 자기애와 자기고양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영역이 차별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표집의 수와 설정한 모형을 고려하여 공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종단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이나 다층모형분석도 자주 활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변인들을 설정하여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이나 다층모형분석으로 검증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되겠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란 (2002). 자기애적 성향자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 연구소.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연합뉴스 (2010. 6. 3). '난 특별해' 나르시시즘은 세계적 전염병.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장은영 (2003). 사회비교동기와 충족수준이 비교 대상의 선택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현주, 임현주, 조선진,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 추구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83-297.
-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83-701.
- 한국경제 (2010. 9. 2). 우울증 늪에 빠진 직장인, "부장은 나만 미워해" 업친아 사회 초년생 '미성숙 우울증' 늘어.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2002).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543-545.
- Buss, D. M., & Chiodo, L. M. (1991). Narcissistic acts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59, 179-215.
- Campbell, W. K., Reeder, G. D., Sedikides, C., & Elliot, A. J.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329-247.
- David, G. (1994). Depression and grandiosity: Clin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disturbance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4, 203-211.
- Derogatis, L. R. (1977). *SCL-90: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I*.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Unit, Johns Hopkins University.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 527-532.
- Hughes, R., Taylor, H., Robinson-Whelen, S., & Nosek, M. (2005). Stress an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Identifying correlates. *Women's Health Issues*, 15, 14-20.
- Kelly, M. M., Tyrka, A. R., Anderson, G. M., Price, L. H., & Carpenter, L. L. (2007). Sex differences in emotion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the Trier social stress test.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9, 87-98.
- Kendler, K., Thornton, L., & Gardner, C. (2000). Stressful life events and previous episodes in the etiology of major depression in women: An evaluation of the "kindling"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243-1251.
- Kessler, R. C. (2003). Epidemiology of women and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 85-96.
- Lasch, C.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최경도 역). 서울:

- 문학과 지성사.(원전은 1979에 출판)
- Miller, R. A. (1979). Depression and grandiosity as related forms of narcissistic disturbance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6, 61-76.
- Millon, T.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TR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Piccinelli, M., & Wilkinson, G. (2000).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7, 486-492.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40-352.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feld, H. (1987). *Impasse and Interpretation: Therapeutic and Anti-Therapeutic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Psychotic, Borderline, and Neurotic Patients*. London: Taylor & Francis.
- Stinson, F. S., Dawson, D. A., Goldstein, R. B., Chou, P., Huang, B., Smith, S. M., Ruan, W. J., Pulay, A. J., Saha, T. D., Pickering, R. P., & Grant, B. F. (2008).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IV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Results from the wave 2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9, 1033-1045.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 (2003). Are self-enhancing conditions associated with healthy on unhealthy biological profi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605-615.
- Taylor, S. E., Wayment, H. A., & Carillo, M. (1993).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Motivation & Cogn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Twenge, J. M., & Campbell, W. K. (2010).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이남석 역). 서울: 옥당.(원전은 2009에 출판)
- Twenge, J. M., Konrath, S., Foster, J. D., Campbell, W. K., & Bushman, B. J. (2008). Egos inflating over time: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76, 875-901.
- Wallace, H. M., & Baumeister, R. F. (2002). The performance of narcissists rises and falls with perceived opportunity for gl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19-834.
- Watson, P. J., Sawrie, S. M., Greene, R. L., & Arredondo, R. (2002). Narcissism and depression: MMPI-2 evidence for the continuum hypothesis in 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9, 85-109.
- Weekes, N., MacLean, J., & Berger, D. (2005). Sex, stress, and health: Does stress predict health symptoms differently for the two sexes? *Stress and Health*, 21, 147-156.

원고접수일 : 2010. 10. 13.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2. 18.

게재결정일 : 2011. 2. 22.

Longitudinal Effects of Self-Enhancement Motive, Implicit and Explicit Narcissism on Depressive Mood

Lee, Ji-Won

Jang, Eun-Young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effects of self-enhancement motives, implicit and explicit narcissism on depressive mood. For this purpose, two types of narcissism as well as self-enhancement motives were measured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the level of depressive mood was measured twice in one year intervals. The two types of narcissism and self-enhancement motives were assumed to be independent variables and were divided into two levels using a median-split method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depressive mood which was adjusted by the same measure of one year ago. Three-way analysis of covariance demonstrated that depression over one year was higher when the level of enhancement motive was high. Also, depression increased along with enhancement motive or explicit narcissism when implicit narcissism was high. However, these results should be qualified by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which confirmed our hypothesis that depression would be higher in condition of high level of enhancement motive when both of implicit and explicit narcissism were high. Finally,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discussed with the stream of previous research.

Key words : Implicit Narcissism, Explicit Narcissism, Self-enhancement Motive, Depression